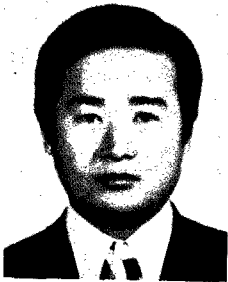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자세를...



김금수

옥성씨서비스상사 대표

— 우리는 변화되는 상황속에서 매일 매일 살고 있다. 변환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지금 이 시각에도 양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시설의 변화, 품종의 변화 등등...

— 그리고 배합사료공장에서는 배합사료 제조업 허가의 변화, 원료공급 과정의 변화, 도입원료의 변화인 수입 자유화 등등...

— 우리는 항상 변화되는 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확실한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변화 두가지로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인 확실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낮과 밤의 기온의 변화는 요즈음과 같은 일교차의 변화에 따라 확실한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의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15°C 이상 차이가 나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을 축산에서는 유식한 용어로 흔히 「사양관리」란 말을 쓴다.

— 이러한 확실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까지도 언제까지 사료공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한다. 확실한 환경의 변화를 학문적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변화에 대응하는 양계인의 자세는 어떨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의 저하를 주인의 미진한 활동에 반성함이 없이 사료 공급자 또는 그 이외의 관련자에게 전가시킨 일은 없었는지 반성해 볼 것이다.

확실한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변화에는 너무 신경과민적 반응을 하는 것은 오늘의 삶이 괴로워서일까? 희망이 없어서일까?

이제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의 문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계절의 변화에 미리미리 신경써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그만큼 적자의 폭을 축소시키는 일이 아니겠는가!